

판소리 주인공들이 별이는 한바탕 소동



광주시립창극단이 지난 8일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 대연실에서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리허설을 한 뒤 단체 포즈를 취했다.

광주시립창극단, 23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열어볼 결심'

판소리 다섯바탕이 끝나고 30년이 흐른 어느 날, 흥보의 초대편지를 받은 춘향, 심청, 학규가 모였다. 허나 이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눈을 뜬 학규는 시니어 인생 강의 일타강사가 됐고 춘향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됐다. 열녀라는 이미지에서 180도 탈피, 이몽룡과 헤어졌다는 소식이다. 심청은 패션비즈니스 대표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반가움에 한바탕 어울러 놀던 이들은 한가지 의심에 사로잡힌다. 각자가 처한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서로를 믿지 못한 채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창극단 최초 마당창극 변화 시도 K팝·트로트·EDM 등 음악 구성 재치있는 인물 변화 색다른 매력

광주시립창극단이 특별한 공연을 마련해 화제다. 판소리 다섯바탕 주인공들의 후일담을 다룬 한바탕 소동극에 '메시지'를 담은, 창극단 최초의 마당창극을 선보인다.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다.

마당창극은 1970년대 이후 형성된 공연의 한 유형으로 무대 출연진들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전통 창극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이번에 선보이는 마당창극은 더욱 특별하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주인공들의 새로운 삶을 재치있게 표현하면서 K팝과 트로트, EDM 등 전통 판소리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 구성으로 무대를 꾸민다. 판소리 다섯바탕 주인공들이 가진 내적 욕망,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주는 공연이다.

춘향, 학규, 토씨는 흥보의 막내아들 끝둥을 만나고, 심청과 함께 갈량이 나타난다. 흥보가 남긴 물건의 행방은 묘연하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서로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나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지러운 와중에

흥보가 이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뮤직비디오 보는 듯한 춤과 소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더해진 마당창극이 객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진욱 연출은 "젊은 창극을 만들고 싶었고 에너지 넘치는 작품으로 준비했다"면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시립창극단 단원들의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무대 의상도 이번 공연이 가진 특별함 중의 하나다. 판소리 다섯바탕 주인공들의 남다른 캐릭터를 다루는 만큼 의상도 현대적으로 장식했다. 전통의상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화려한 색과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을 가미한 현대적인 복장으로 캐릭터의 표현 영역을 더욱 넓히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만큼 창극단 배우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학규 역을 맡은 정승기는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과는 다른 분위기였고 그래서 준비과정이 남달랐다"며 "공연이 코앞인데 남다른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향 역의 이서희는 "인간 춘향이 사랑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바라보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며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에너지를 듬뿍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총감독을 맡은 박승희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판소리 다섯바탕의 인물을 현대로 소환해 선물을 건넨다. 우리 전통의 메시지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면서 "광주하면 대표적인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작품을 준비한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창극단이 새로운 레퍼토리의 마당창극을 선보이면서 관심이 급증, 티켓은 매진 상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이번 초연을 시작으로 '열어볼 결심'을 광주를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글·사진·최진화 기자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리허설을 하고 있는 광주시립창극단 단원들.

"국립광주과학관서 태양 직접 관측해보세요"

17~18일 '태양관측소' 천문행사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17~18일 태양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특별 천문 행사 '태양관측소'를 개최한다.

11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우주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항성)이라 부르며, 그 별의 주위를 돌면서 별빛을 받아 반사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부른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천체다.

특별 천문 행사 프로그램 '태양관측소'에서는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 있는 태양 전용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흥미를 직접 관측할 수 있으며, 태양 필터를 장착한 망원경을 이용해 흑

점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태양은 약 11년을 주기로 활동하며 극대기와 극소기를 오간다. 현재는 활동이 많은 극대기로 참가자들은 다수의 흑점과 활발한 흑염의 모습을 통해 보다 생동감 넘치는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

특별천문행사 '태양관측소'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별빛천문대를 방문한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단, 오전 시에는 행사가 취소되며 행사 운영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회화·꽃·채소...아티스트·플로리스트 콜라보 전시

대담미술관 'This is for you'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의 콜라보 전시 'This is for you'가 오는 31일까지 대담미술관(담양군·읍 언골길 5-4)에서 열린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나이에 빔대어 표현해 온 진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 '너에게 숲을 줄게' 시리즈를 선보인다. 채소를 이용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숲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채소를 다듬으며 요리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엄마가 전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김주안 플로리스트(투이플라워클럽)는 이번 전시에서 꽃다발, 꽃바구니 등 기존장식의 틀을 깨고, 채소와 꽃이 어우러진 연출을 선보인다. 진허 작가의 '너에게 숲을 줄게'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당근, 브로콜리, 풋마늘과 꽃을 콜라보했다.

김주안 플로리스트는 "한 공간에서 '너를 위



진허작가×투이플로리스트 콜라보 작품. 대담미술관 제공

한 마음'을 주제로 진허 작가와 콜라보한 것이 신선한 실험과 같았다"며 "꽃이 지닌 의미를 독창적인 언어로 풀어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진허 작가는 "그동안 많은 전시에 참여해왔지만, 다른 영역과의 콜라보한 새로운 시도는 참신하게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작가로서 도전 두려워하지 않고, 관람객과 호흡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창작국악단 도드리 음악극 '끝나지 않은 오월'

18일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사창작국악단 도드리가 18일 오후 5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5월 음악극 '끝나지 않은 오월' 무대를 선보인다.

작품은 1980년 5월 18일 발발한 광주민중항쟁을 배경으로 광주시민과 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그린다. 특히 올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0여 일간 시민 저항의 물결이 모여 역사적 승리를 이끌어낸 시기와 맞물려

더 주목을 받는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 규명을 통한 단죄가 이뤄졌다면 없었을 12·3 내란을 다시 목격한 대한 국민을 위로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재섭 도드리 이사장 겸 지휘자는 "3년 전부터 오월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음악극 형태로 공연을 계속해 왔지만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또다시 재현될 줄은 몰랐다"며 "5월 광주를 알리는 공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JB가든센터 **대림묘목농원(주)**

자연이 살아 숨쉬는 JB가든센터/대림묘목농원!
좋은 품종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나무시장 NO1 JB가든센터



YouTube **대림묘목농원 유튜브 검색후 구독!!**

 <p>렛츠댄스 수국 시리즈 최근 가장 핫한 시계수국 캔두 & 이리바 & 스카이뷰</p>	 <p>안개나무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 가능!</p>	 <p>은청가문비 전형적인 녹색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p>
 <p>붓들레아 벌과 나비가 좋아하는 나무! 향기정원 대표 수종</p>	 <p>그라스 가을의 대표 조경 품종!</p>	 <p>자작 잿큐몬티 겨울이면 빠질 수 없는 하얀 수피의 매력을 가진 자작나무</p>

THE KOREA NURSERY **JB가든센터** **www.namu4u.co.kr**
대림묘목농원(주) **Tel. 043) 732-1439**